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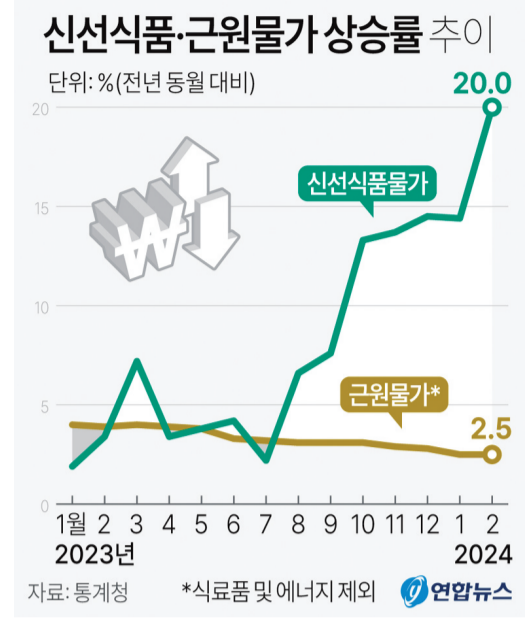
근원물가 역주행하는 먹거리... '상반기 2%대 달성' 흔들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차이 17.5%p 달해 석유류 가격 변동성도 커져... 정부 물가관리 목표 달성 비상

먹거리 물가가 11개월째 하향 보합세인 근원물가가 흐름과는 반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특히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크게 뛰면서 근원물가 상승률과의 괴리는 4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석유류 가격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대 중반 근원물가, 신선식품과 17.5%p 괴리=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10.3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작년 3월 4.0%에서 4월 3.9%, 5월 3.8%로 하락하다가 6월 3.3%까지 낮아졌다. 이듬달 3.2%로 내려온 후 작년 8~10월 3.1%

유지했다. 작년 11월(2.9%)에는 20개월 만에 처음 2%대로 진입했다. 이후 작년 12월 2.8%, 올해 1월 2.5%로 추가 하락해 지난달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지난달 작년 동월과 비교해 20.0% 급등했다. 2020년 9월 20.2% 상승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신선식품 지수는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다.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2.2%에서 높아지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13.3%)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다. 작년 12월(14.5%)과 올해 1월(14.4%)에는 나란히 14%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신선식품 물가상승률(20.0%)과 근원물가 상승률(2.5%) 차이는 17.5%포인트(p)에 달한다. 두 지수 물가상승률의 괴리는 2022년 10월

(18.6%p) 이후 가장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물가안정' 제동?="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1번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내걸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물가·서민생활 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솟는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정부의 상반기 중 2%대 조기 달성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사과처럼 수입되지 않는 과일은 가을 수확철이 오기 전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정부 대책이 '땀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할인 지원으로 계속 수요를



돋운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일 가격이 강세인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정부가 상반기 사회간

접자본(SOC) 예산 65%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해 수요가 강하다. 물가가 잡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일 가격 안정세에는 공급과 수요 분산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원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건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은 비축 물량을 풀거나 할당관세로 대체 과일의 수입을 늘려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오렌지·바나나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고 수입 과일 3종(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할인지원은 사과값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는 차원"이라며 "대체 과일로 수요 분산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경로를 크게 벗어났지만 유가와 기상 등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천정부지 금값... 금 펀드 수익률도 덩달아 고공행진

1주일 수익률 6% 천정부지 "단기 조정 가능성 염두에 뒀어"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 펀드와 금 ETF(상장지수펀드) 수익률도 살아나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펀드 12개의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6.07%였다. 같은 기간 46개 테마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0.46%로 마이너스(-)였으나, 최근 들어 수익률이 훌쩍 오른 것이다. 금 ETF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ACE KRX 금 현물' ETF의 일주일 수익률은 5.5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익률 상승세는 국제 금값이 오른 영향이다. 국제 금값은 8일(현지시간) 기준 온스당 2천161.55달러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국내 금값도 덩달아 올라 KRX 금시장에서 같은 날 1kg 현물의 종가는 g당 9만1740원을 기록하며 시장 개시 후 처음 9만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에는 9만233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값은 연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굳어진 가운데 최근 공개된 미국 경제 지표 둔화가 기대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의 금 가격 상승은 역대 최고치 돌파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린 측면도 있어,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본질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미 달러와 금리 모두 아직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 가격은 연 말까지 강보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나, 현재 가격은 밴드 상단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5천만원 출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서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며, 광주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42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광주 서구청은 고신용자 4.0%, 중·저신용자 5.0%의 이차차액을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서구 소재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상재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10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0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딤티크' 매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향수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각국을 대표하는 유명 향수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시향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화이트데이 선물 향수 어때요"... 광주신세계 유명 브랜드 한자리에

광주신세계는 화이트데이(3월14일)를 맞아 향수브랜드인 '딤티크'와 '아쿠아 디 파르마'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아쿠아 디 파르마는 대표 상품 '매그놀리아 노빌레'를 선보인다. 매그놀리아 노빌레는 여성 향수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으로, 부케를 연상시키는 향이 특징이다. 아쿠아 디 파르마의 매그놀리아 노빌레 오드 퍼퓸 50ml와 100ml를 각각 25만원, 34만원에 판매

한다.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프랑스 대표 향수 브랜드 딤티크는 바다향과 꽃향기를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 도넛 컬렉션'을 선보인다. 딤티크 도넛은 오드 퍼퓸렛 제품으로 30ml 제품은 14만 1000원, 75ml 제품은 27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조 말론 런던'의 '센티드 메멘토(Scented Mementos)' 컬렉션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 엔티크 마켓에서 발견한 유니크한 소품들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향기로 구성된 리미티드 컬렉션으로, '머스크 메멘토 코롱(11만 4000원)', '진저 비어 코롱(11만 4000원)' 등이 포함된다. 김은석 광주신세계 잡화팀장은 "화이트데이 선물로 수요가 높은 향수는 취향에 맞는 향은 물론 향이 지속되는 시간의 차이도 있는 만큼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며 "광주신세계 본관 2층을 방문해 직접 향수를 테스트 해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제품을 추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노사협력 대상·유공자 9인 표창 수여

광주경총노사협력회(회장 양진석·부회장 최영환)는 지난 8일 제44회 정기총회와 제 25회 노사협력 유공자 포상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노사 화합을 선도하고 있는 회원을 포상하고 지난해 사업 결과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선언(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노사협력 대상에는 ㈜대우 에스앤티 강용선 회장과 ㈜한영피앤에스 김윤섭 회장이 공동 수상했다. 또 노사화합 유공자로 ㈜코비코 조광철 회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에이치글로벌 장준호 상수석, ㈜무진기엔 김기범 부장, ㈜에니셀 이범식 이사가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건영기업 정성훈 대리, ㈜삼양통은 임소정 과장,

한진KPS 오단비 차장이 각각 광주고용노동청장 표창을 받았다. 총회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은 축하사에서 "양진석 회장 취임 이후 617개사로 회원이 증가하는 등 광주경총 크게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많은 건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진석 회장은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작년 한 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청년·중장년 미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빛그린산단 주변 산업단지 추가지정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CEO간담회, 교육, 정보제공,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신보 청년창업 특례보증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총 200억원 규모의 '2024년 광주시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광주신보가 광주시와 7개 금융기관(광주·국민·기업·농협·우리·하나·카카오)과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올해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1년간 3% 이자를 지원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도복권 (제 111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7	11	20	22	41	2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47,392,719	16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37,229,214	118
3	5개 숫자일치					1,202,258	3,654
4	4개 숫자일치					50,000	173,234
5	3개 숫자일치					5,000	2,747,163

진흥기업 420억원 국도 56호선 건설공사 수주

효성그룹 건설 계열사 진흥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약 420억원 규모 '흥천양수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사는 강원도 흥천군 흥천면 일대에 760m 길이 교량을 포함한 연장 3.14km, 폭 9.5m 도로를 2028년 3월 13일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미건설, 터파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진

흥기업(지분율 70%)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공사입찰에서 종합심사 1순위로 평가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진흥기업은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용저감시설 설치 공사 등을 준공했으며, 작년 12월 아산 충무교 건설공사도 수주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